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2. 자기 꿀은 잘 봐 주면서 남의 꿀은 못 봐 준다.

23. 참는 쪽이 꿀을 보는 자다.

24. 참지 못하는 자, 곧 꿀을 못 봐 주는 자는 자기 꿀도 못 봐 주게 된다.

25. 남의 꿀을 못 봐 주면 결국 남을 죽이고, 그 성질로 자기도 죽인다.

26. 남을 살려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살린다.

27. 남을 살리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살린다.

28. 어떤 사람은 그토록 고생하여 얻고 찾은 생명인데, 이 꿀 저 꿀 안 보고 떠나간다.

29. 달고 쓴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 꿀 저 꿀 다 보고 살면, 어느 날 안개가 걷혀 청아한 하늘이 보이고 기다리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30. 잘되려면, 이 꿀 저 꿀 다 보기다.

31. 성자 분체는 34년 동안 이 꿀 저 꿀 다 보고 심정 태우면서 왔다. 그래서 오늘날 성자 주님이 좋아하신다.

32. 선생 꿀 못 보고 섭리 집을 떠난 자들이 지금 무슨 꿀을 보고 사는지 아느냐. 사탄 꿀 세계에서 별의별 꿀을 다 보고 겪고 먹으면서 괴로워하며 산다.

33. 문어가 꿀뚜기 꿀 못 보겠다고 바다를 떠나느냐. 떠나는 문어만 모래 위에서, 땅에서 살아야 된다.

34. 어떤 사람은 성자 주님의 꿀도 못 보겠다고 하며 성자 주님도 못 믿겠다고 한다.

35. 꿀 중에는 배신 꿀, 악평 꿀, 억울하게 하는 꿀, 자기 양심을 뭉개면서 행하는 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인·가정·민족·세계·시대를 꼭 심판하신다.

36. 예쁜 꿀도 못 보고 미운 꿀도 못 보고 외면하고 불신하느냐. 예쁜 자가 밋게 변장하고, 미운 자가 예쁘게 변장했다. 네가 꿀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37. 성자는 때마다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꿀로 나타나셔서 신후사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

38. 예쁜 꿀도 미운 꿀도 모두 보고 감사하면서 가면, 그로 인해 얻게 된다.

39. 둘 중의 한 가지에는 꿀이 있으니 얻지 않겠느냐.

40. 자기 꿀 보듯, 남의 꿀도 보아라.